

시각 자료를 활용한 초등학교 음악 지도*

임 미 경**

차 례

- I. 들어가는 글
- II. 그림을 활용한 노래곡 지도
- III. 그림을 활용한 감상곡 지도
- IV. 끝맺는 글

I. 들어가는 글

음악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 음의 길고 짧음은 4분 음표나 8분 음표 등의 음악적 상징으로 나타내고 음의 높고 낮음은 5선 악보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고 가르쳐준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악을 배우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라고 여길 것이다.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결과인데 왜냐하면 새로 배우는 개념을 상징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림이나 행위로 익히는 것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Bruner, 1970). 그러므로, 음악을 쉽게 이해하려면 5선 악보나 음표로 선율이나 리듬을 배우는 것보다 그림으로 배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초등 학교에 처음 들어간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줄 때 5선 악보 위의 음표를 보고 노래를 불러 보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음악이 어렵다고 느껴 악보 읽기를 싫어하게 되므로 저학년에서는 악곡을 5선 악보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그림 악보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6차 교육과정 에 의한 저학년의 악곡들은 처음의 4곡만을 그림 악보로 제시하고 그 다음 곡들은 모두 5선 악보로 제시하였다. 더군다나 그림 악보라고 제시한 한정 보표 마저 덧줄을 그려놓는 오류를 범하였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그림 악보를 그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5선 악보

* 이 논문은 교육부 1997년 교과교육 공동연구소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의 일부임.

** 전주교육대학교 조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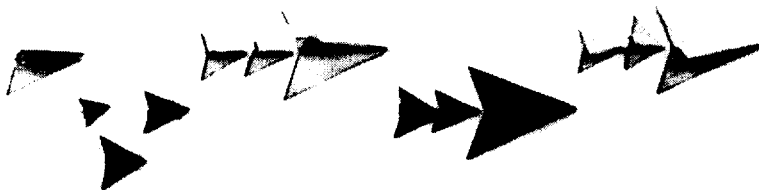
는 읽을 줄 모를지라도 그림 악보를 통하여 음의 높낮이나 길이를 인식하여 음악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감상 지도를 할 때 보여주는 주제 선율도 음악 교과서에는 5선 악보로 제시되어 있지만 그림으로 선율 모양을 나타내주면 학생들이 주제를 훨씬 쉽게 인식할 수 있다. 그리하여 연구의 내용을 현행 6차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노래곡 뿐만 아니라 감상곡 또한 그림 악보로 만드는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탐색해 보고 그 지도안을 구안하기로 정하였다. 연구의 범위로 노래곡은 즐거운 생활에 나오는 노래 중에서 전래 동요나 놀이요는 제외시켰고 감상곡은 3, 4, 5, 6 학년에 나오는 서양 악곡들로만 제한하였다.

II. 그림을 활용한 노래곡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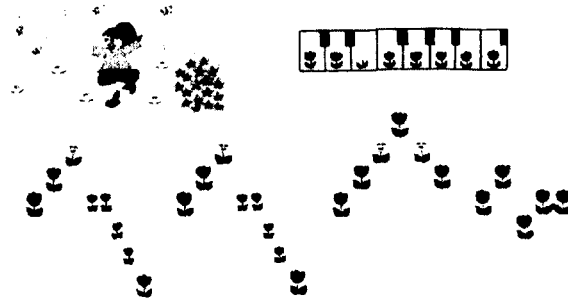
노래의 선율을 5선 악보가 아닌 그림으로 표현할 때의 기본 원칙은 그림의 길이가 음의 길이와 비례하고 그림의 위치가 음의 높낮이와 비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4분 음표를 3cm로 그렸다면 8분 음표는 1.5cm, 점4분 음표는 4.5cm로 그리고 쉼표는 점선으로 그리거나 무색으로 그리는 것이다. 음높이의 위치도 위 아래로 일정하여서 도와 미 사이에 레가 있어야 하고 도와 미의 간격이나 미와 솔의 간격이 같아야 한다. 음높이의 차이를 쉽게 구별하기 위해 음 이름마다 일정한 색깔을 주면 효과적이다. 장음계의 7음을 무지개의 7가지 색깔과 부합하였다면 도는 빨간 색이 될 것이고 시는 보라 색이 되어 학생들이 계이름 읽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노래의 선율을 그림으로 그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크게 3가지 양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노래의 제목이나 가사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비행기”라는 노래는 <그림 1> 처럼 비행기의 색깔과 길이로 선율을 나타낼 수 있고 “봄동산 꽃동산” 노래는 꽃의 색깔과 길이로 선율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비행기”의 그림 악보 일부



<그림 2> “봄동산 꽃동산”의 그림 악보 일부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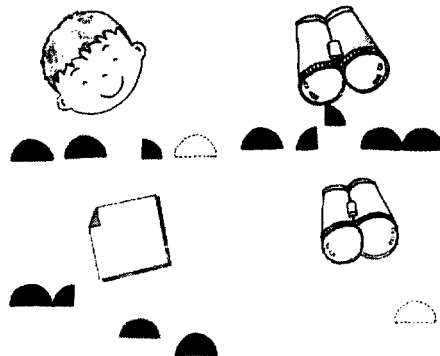


둘째, 노래의 선율을 원이나 반원으로 그리는 것이다. 가사의 내용을 <그림 3> 처럼 원 안에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림 4> 처럼 1마디 단위로 그릴 수도 있다.

<그림 3> “둘로 산으로”의 그림 악보 일부²⁾



<그림 4> “장난감 망원경”의 그림 악보 일부³⁾



- 1) 김인옥의 그림 악보
- 2) 나경주의 그림 악보
- 3) 박은영의 그림 악보

셋째, 노래의 선율을 막대로 그리는 것이다. 음악의 선율 진행을 5선 악보 위의 음표가 아닌 막대로 표현한 것을 막대 악보라고 부르는데 노래곡에서 사용하는 막대 악보로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그림 5>처럼 막대만으로 선율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고, 둘째, <그림 6>처럼 막대의 두께로 음높이를 나타낼 수도 있으며, 셋째, 막대 위에 가사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림 5> “뚝갈아요”의 막대 악보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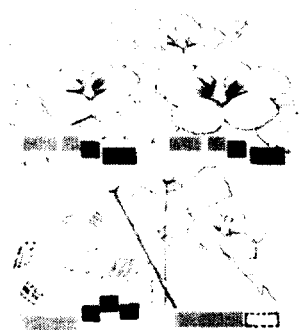
<그림 6> “봄이 왔어요”의 막대 그림 악보 일부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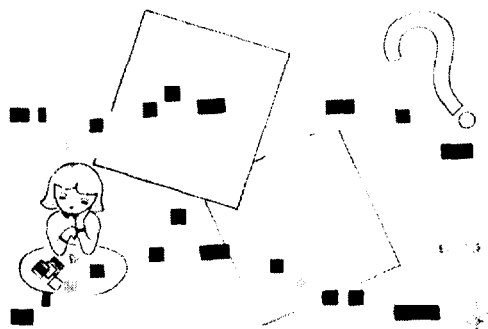
세번째 경우의 막대 악보를 그리는 방법은 가사의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그려질 수 있다. <그림 7>처럼 막대 하나 하나마다 그림을 그려 가사의 내용을 표현하기도 하며 <그림 8>처럼 1박마다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림 9>처럼 1마디마다 그릴 수도 있고 <그림 10>처럼 2마디 또는 4마디마다 그리기도 한다.

4) 황성진의 그림 악보

- 5 -

<그림 10> “우리나라 꽃”의 막대 그림 악보 일부⁸⁾

즐거운 생활에 나오는 노래 악보들은 대부분이 노래의 분위기를 배경으로 그려준 후에 5선 악보로 제시되어 있는데 막대 악보로 그릴 때에도 가사의 내용을 배경으로 그린 후 <그림 11> 처럼 막대로 선율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림 11> “종이 접기”의 막대 그림 악보 일부⁹⁾

그림이 그려진 막대 악보는 막대 안을 동그랗게 비워두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이 노래를 배운 후에 계이름이나 가사를 써 넣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국의 음악 교과서에는 그림이 있는 막대 악보보다 첫번째 경우의 막대 악보가 많이 나오는데 가사가 막대 위나 아래에 적혀 있다.

그림 악보로 노래를 가르쳐주는 방법은 학생들의 음악적 수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처음

8) 박민희의 그림 악보

9) 한호선의 그림 악보

수준인 계이름을 모르는 학생들에게는 가사로 먼저 노래를 불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노래지도를 하게 된다 :

- 1) 교사가 가사를 2마디나 4마디 단위로 선창하면 학생들은 교사의 시범창을 듣고 그대로 따라 부른다.
- 2) 가사창을 할 때 학생들은 가사 하나 하나마다 그림이나 막대 하나씩을 짚어 가며 노래부른다.

학생들에게 계이름을 가르쳐주고 싶으면 막대 색깔마다의 계이름을 알려주어서 학생들이 계이름으로 노래부르도록 하는데 코다이의 손기호와 함께 계이름으로 부르면 음감을 개발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계이름이 잘 파악이 안되는 학생들에게는 막대 위에 계이름을 써서 부르는 것도 무방하다. 막대의 색깔에 익숙해져서 계명을 이해하게 되면 노래 지도를 다음과 같이 이끌 수 있다 :

- 1) 막대의 색깔대로 학생들이 계이름을 읽어 본다. 이 때, 막대의 길이는 무시한다. 학생들이 코다이의 손기호를 알고 있을 때에는 손기호와 함께 계이름으로 노래부르고 손기호를 모를 때에는 교사가 계이름에 해당하는 음을 악기로 연주해 준다. (예를 들면, 실로폰이나 피아노, 멜로디온 등을 사용).
- 2) 막대의 길이대로 학생들이 손뼉을 친다. 막대의 길이를 손뼉치는 양손의 폭이라고 간주하여 손뼉치는데 짧은 막대에서는 양손의 폭을 줄여서 치고 긴 막대에서는 긴 만큼 손뼉을 벌려서 친다.
- 3) 손뼉을 치면서 계명을 읽어본 후 손뼉치기와 함께 계명창을 한다. 이 때 교사는 노래의 선율을 악기로 연주해 준다.
- 4) 교사가 가사를 읽어 주면 학생들은 그 가사를 막대 위에 적은 후 교사의 반주에 맞추어 가사로 노래를 부른다.

그림 악보로 노래를 지도하면 노래곡의 형식을 가르쳐주기도 쉬워진다. 그 이유는 같은 색상의 배열을 가진 곳을 찾다 보면 곡의 형식이 저절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Ⅲ. 그림을 활용한 감상곡 지도

감상곡의 음악적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상곡의 주제 선율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 음악 교과서에는 주제 선율을 5선 악보로만 제시하였지만 미국의 음악 교과서를 살

퍼보면 감상곡의 주제 선율을 막대 또는 그림으로 보여주거나 번호 도표를 제시한 경우가 많다. 음악감상 지도를 할 때 그림을 활용하여 지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크게 4가지 양태로 구분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주제 그림 악보, 주제 막대 악보, 감상 그림 악보, 번호 도표.

1. 주제 그림 악보로 감상하기

주제 그림 악보란 감상곡의 주제 선율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으로 표제 음악일 때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목이 상징하는 그림으로 주제 선율을 그리면 주제 그림 악보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초등 학교 음악 교과서에 나오는 감상곡들은 모두 표제 음악이므로 가장 편리하게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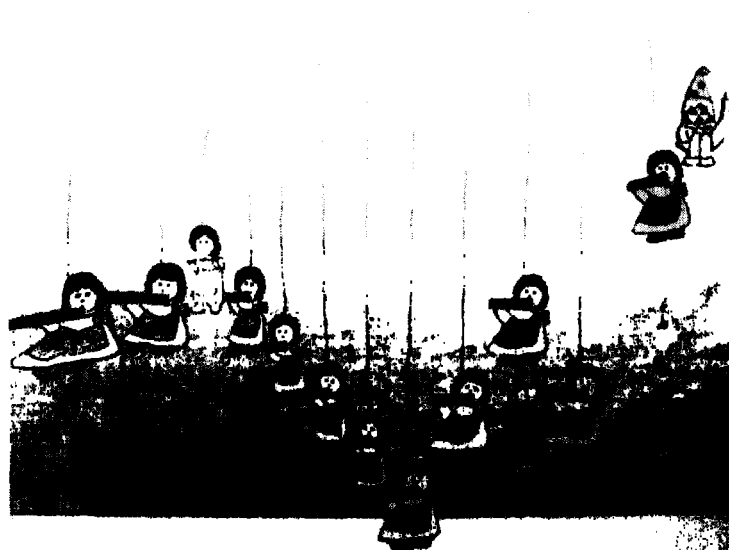
주제 그림 악보를 그리는 원리는 앞서 소개한 노래곡의 그림 악보 만드는 방법과 같다. 예를 들면, '수족관'의 주제 그림 악보는 물고기의 길이와 높이로 주제 선율을 나타낼 것이고, '나팔수의 휴일'의 주제 그림 악보는 나팔의 길이와 높이로 주제 선율을 표현할 것이다. 주제 그림 악보의 길이는 주제 선율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므로 적어도 4 마디나 8마디 이상이어야 할 것이다.

주제 그림 악보로 감상 수업을 할 때 다음의 다섯 단계는 거치게 될 것이다:

- 1) 주제 그림 악보를 보면서 학생들이 감상곡의 주제 선율을 익힌다. 선율 익히는 방법은 주제 리듬을 손뼉으로 치거나 주제 선율을 계이름으로 노래부르는 것이다.
- 2) 감상곡을 들으면서 주제 선율이 나올 때마다 학생들이 손을 들어서 그 선율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때, 손가락 번호로 몇 번째 반복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 3) 감상곡을 들으면서 주제 선율이 어떤 악기로 연주되는지 학생들이 알아 맞힌다. 이 때, 학생들은 가능한 한 연주되는 악기를 자기가 연주하는 것처럼 흉내내는 것이 좋다.
- 4) 감상곡을 들으면서 주제 선율 이외에 어떤 선율이 나오는지 학생들이 찾아낸다. 이 때, 주제 선율을 왼손으로 반응했다면 주제 아닌 선율에서는 오른손으로 반응한다든지, 색종이를 사용하여 주제 선율이 나올 때 빨간 색종이를 들었다면 주제 아닌 선율에서는 노란 색종이를 들을 수도 있다.
- 5) 주제 선율과 그 이외의 선율들이 어떻게 어우러져서 감상곡을 구성하고 있는지 다시 들으면서 학생들이 밝혀낸다.

<그림 12>는 비제의 "아틀르의 여인 모음곡 2번"에 나오는 '미뉴엣트'의 주제 그림악보이고 이 자료로 감상 수업을 전개하는 방법의 예도 제시해 보았다.

<그림 12> 비제의 '미뉴엣트'의 주제 그림 악보의 일부¹⁰⁾



10) 신유미의 그림악보

- 1) 학생들은 <그림 12>의 그림 하나 하나를 짚어 가면서 주제 선율을 노래 부른다.
- 2) 감상곡의 A부분만 들으면서 주제 선율이 나올 때마다 학생들은 손가락으로 꼽는다. 동시에 어느 악기가 주제 선율을 연주하는지 학생들이 생각해보고 반주는 어떤 악기가 연주하는지도 알아본다.
- 3) 교사는 주제 선율을 플루우트가 연주했고 반주는 하프가 연주했다고 알려준 후 학생들은 감상곡 전체를 들으면서 주제 선율이 나올 때마다 플루우트 부는 흉내를 낸다.
- 4) 학생들의 반응을 통해 교사는 이 곡의 주제 선율이 처음과 나중에 나왔다고 정리해 주고 이러한 구조를 음악에서는 ABA형식이라 부른다고 알려준다.
- 5) 학생들은 A부분과 B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감상곡을 다시 들을 때 박자 짓기도 해본다.
- 6) 교사는 이 곡이 B부분에서는 관현악기가 모두 연주하여 소리가 커졌다고 알려주고 이 곡처럼 3박으로 박자 짓기를 하는 춤곡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곡은 그 중에서 '미뉴엣트'라는 춤곡이라고 설명해주며 프랑스 작곡가인 비제가 만든 "아를르의 여인"이라는 모음곡 중에서 2번째 모음곡에 수록되어 있다고 덧붙인다.

2. 주제 막대 악보로 감상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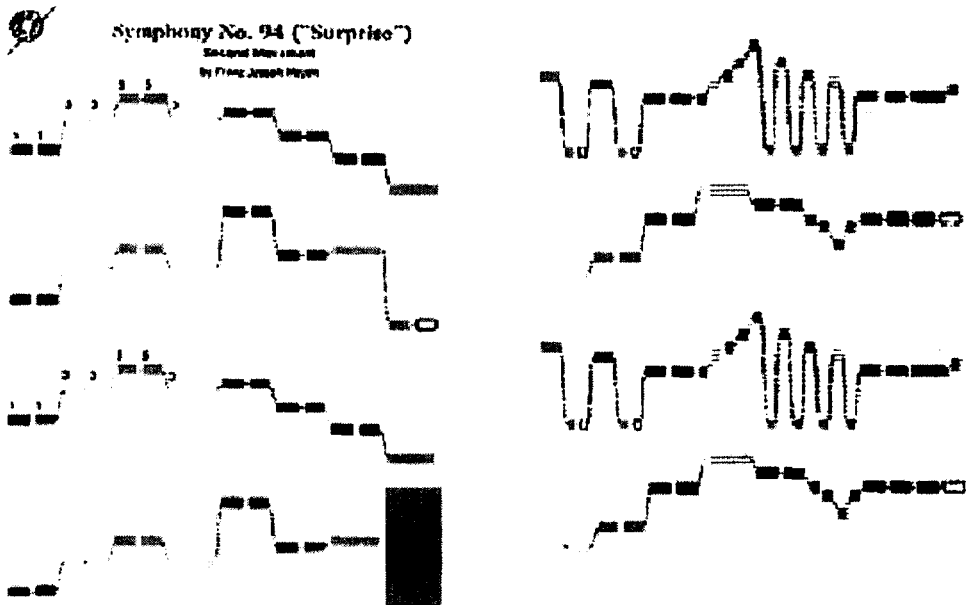
주제 막대 악보는 주제 선율을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곤란하거나 주제 선율이 선율적으로나 리듬적으로 복잡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 주제 선율을 인식하는데 더 어려울 때 사용하게 된다. 주제 막대 악보는 그림 악보보다 감상곡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훨씬 수월하다. 왜냐하면, 그림 악보는 주제 선율의 일부를 보여주거나 그림으로 그렸기 때문에 선율 구조를 한 눈에 파악하기 힘들지만 막대 악보는 주제 부분을 전부 보여주기 때문에 곡의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주제 막대 악보는 5선 악보보다 감상곡의 구조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5선 악보 위의 선율은 독보력이 있어야 이해가 되지만 막대 악보의 선율은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같고 다름을 구별할 수 있다.

주제 막대 악보를 그릴 때에는 4마디 단위로 그려야 선율 구조를 이해하기 쉬워진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주제 선율이 4마디 단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간혹 주제 선율이 3마디나 6마디 단위로 달라질 때에는 달라진 선율이 막대 악보 왼쪽에서 시작되도록 그려야 한다.

주제 막대 악보는 변주곡 형식으로 된 감상곡을 지도할 때 더욱 효과적이다. 그 이유는 주제 막대 악보가 밑그림이 되어 곡이 달라질 때마다 학생들이 그 위에다 덧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변주되었는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변주곡을 감상할 때 주제 막대 악보로 지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 1) 변주곡의 주제 막대 악보를 보여 주고 학생들과 함께 막대 그림의 같고 다름을 찾아낸다.
 - 2) 변주곡의 주제 부분을 들을 때 교사가 선율의 진행에 따라 막대 하나하나를 짚어주든지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막대 악보에서 선율을 쫓아간다.
 - 3) 변주곡을 들을 때 주제 선율이 달라지는 부분을 막대 악보가 밑그림이 되어 학생들이 그 위에 덧그림으로 그린다.
 - 4) 각각의 변주곡마다 달라진 그림을 보면서 주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교사와 학생이 함께 토론한다. 이 때 교사는 변주하는 방법으로 선율의 변화, 대위 선율의 등장, 리듬의 변화, 음색의 변화, 셈여림의 변화, 조성의 변화, 주법의 변화 등이 있다고 알려준다.
 - 5) 변주곡 전체를 들으면서 변화된 방법에 대해 몸으로 표현해 본다. 예를 들면, 악기 연주하는 모습을 흉내낸다거나 대위 선율을 손가락으로 흔들어 본다든지 달라진 리듬을 책상 위에서 손가락으로 쳐보는 것 등이다.
 - 6) 변주곡을 다시 들을 때에는 변화되어 연주하는 부분들을 조용히 음미하며 듣는다.
- <그림 13>은 미국의 음악 교과서에 실린 하이든의 놀람 교향곡 2악장의 주제 막대 악보 (Meske, E. et al., 1988)이고 이 자료로 변주곡을 지도하는 단계를 구안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13> “놀람 교향곡”의 2악장 주제 막대 악보



- 1) “<그림 13>에서 왼쪽 막대 악보의 끝부분 막대가 아주 큰데 왜 이렇게 그랬을까 한번 들어보자”라고 교사가 제안하면 아이들은 자신의 막대 악보에서 막대 하나 하나를 지적하면서 주제 선율을 듣는다. 교사는 “놀람교향곡”의 왼쪽 막대 악보까지만 들려준다.
- 2) “끝부분의 막대가 왜 크게 그려진 것 같니?”하고 교사가 물어보면 아이들은 “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라고 답한다. 그래서 이 곡을 “놀람 교향곡”이라고 부른다고 교사는 알려준다.
- 3) “왼쪽 막대악보에서 첫째 줄의 막대 윤곽과 같은 모양이 어디에서 나오지?”하고 교사가 물으면 아이들은 “셋째 줄이요”라고 답한다. “그러면, 둘째 줄과 넷째 줄의 차이는 무엇이지?”라고 물으면 “끝부분의 큰 막대요”라고 답한다. “그러면, 첫째 줄, 셋째 줄의 선율과 둘째 줄, 넷째 줄의 선율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 한번 더 들어보자.” 라고 말하며 교사는 왼쪽 막대 악보까지만 다시 들려준다.
- 4) “첫째 줄, 셋째 줄의 선율과 둘째 줄, 넷째 줄의 선율이 아주 다르니?”라고 교사가 물으면 “아니요. 뒷부분만 달라요”라고 아이들이 답한다. 그래서 왼쪽 막대악보는 a a' a'의 모양을 갖는다고 교사가 알려준다.
- 5) “놀람 교향곡”의 2악장 주제를 듣는 동안 아이들은 막대 하나 하나를 짚어 가면서 선율을 쫓아간다.
- 6) “오른쪽 막대 악보에서 첫째 줄의 막대 윤곽과 같은 모양이 어디에서 나오지?”하고 교사가 물으면 아이들은 “셋째 줄이요”라고 답한다. “그러면, 둘째 줄의 막대 윤곽은 다른 데서 또 나오니?”라고 물으면 “네, 넷째 줄에서요.”라고 답한다. “첫째 줄과 둘째 줄의 막대 윤곽은 비슷하니?”라고 물으면 “아니요.”라고 답한다. 그러므로 오른쪽 막대악보는 bcbc의 모양을 갖는다고 교사가 알려주면서 결국 이 주제 막대악보는 앞부분이 A, 뒷부분이 B인 2부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결론짓는다.
- 7) 아이들은 허밍을 하면서 막대를 짚어가며 주제를 한번 더 듣는다.
- 8) 첫번째 변주된 부분을 들을 때 아이들은 들리는 대로 자기의 막대 악보에 덧그림을 그린다.
- 9) “너희 그림이 처음의 막대 악보와 어떻게 달라졌니?”라고 교사가 물으면 “새로운 선이 위에 생겼어요”라고 아이들이 답한다. 그렇게 주선율 위에 새로운 선율이 나타나는 것을 “대위 선율”이라고 교사가 알려준다. 이 때, 대위 선율을 어떤 악기가 연주했는지 교사가 물어볼 수도 있다.
- 10) 아이들이 막대 모양대로 손으로 음높이를 나타내면서 허밍으로 두 줄을 불러본 후 두 번째 변주를 듣는다.
- 11) “지금은 주제가 어떻게 바뀌었지?”라고 교사가 물으면 “3번째 막대의 음이 달라졌어요.”

라고 아이들이 답한다. “3번째 음이 반음 내려가니까 음악의 분위기가 달라지지? 이러한 것을 음악에서는 조성이 바뀌었다고 말한단다.”라고 교사가 가르쳐 준다.

- 12) 아이들이 막대 길이대로 손뼉을 치며 허밍으로 두 줄을 불러본 후 세번째 변주를 듣는다.
- 13) “이번에는 주제가 어떻게 달라졌니?”하고 교사가 물으면 “음이 많아졌어요.” 또는 “바빠졌어요.”같은 대답을 아이들이 하게 된다. 같은 길이에서 음이 많아지는 것을 음악에서는 리듬 분할이라고 말한다고 교사가 가르쳐 준다.
- 14) 네 번째 변주된 부분을 들을 때 아이들은 들리는 대로 자기의 막대악보에 덧그림을 그린다.
- 15) “너희 그림이 처음의 막대악보와 어떻게 달라졌니?”라고 교사가 물으면 “새로운 선도 생기고 막대의 위치가 조금 달라졌어요.”라고 아이들이 답한다. 막대 위치가 바뀌는 것을 음악에서는 선율이 달라졌다고 말한다고 교사가 가르쳐 준다.
- 16) 이 곡이 18세기 오스트리아에서 살았던 작곡가, 하이든이 만든 “놀람 교향곡”중에서 두 번째 악장이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주제가 4가지로 변화된 방법을 다시 요약해 준 후 교사는 2악장을 처음부터 다시 들려준다. 아이들은 4가지 변화된 방법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듣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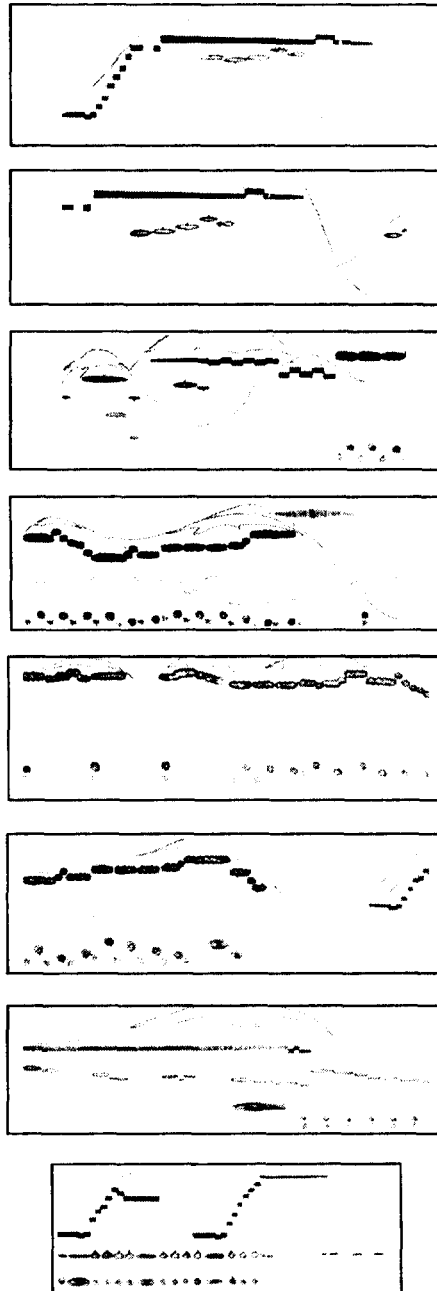
3. 감상 그림 악보로 감상하기

감상 그림 악보 (listening map)는 감상곡의 주제 부분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감상곡 전체를 들리는 데로 그려 놓은 것이다. 소리가 세게 들리면 그림을 크게 그리고 소리가 길면 그림도 길게 그리며 소리가 낮으면 그림도 낮은 위치에 그리고 음색이 바뀌면 그림의 모양도 바뀌어서 그린 것이기 때문에 감상 그림 악보를 사용하여 감상 지도를 하면 5선 악보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도 감상곡의 음색 변화, 선율 변화, 셈여림 변화, 형식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감상 그림 악보로 음악 감상을 지도하는 요령은 대략 다음과 같다 :

- 1) 감상곡의 주제 선율 그림이 어디에 또 나오는지 학생들이 찾아내어 곡의 형식을 대략적으로 분석한다.
- 2) 주제 선율을 표현한 그림 이외에 어떤 모양들이 그려져 있는지 학생들이 분류한다.
- 3) 감상곡을 들으면서 서로 다르게 그려진 모습들이 어떤 악기로 연주하는지 학생들이 알아낼 때까지 반복해서 듣는다.
- 4) 감상 그림 악보의 모든 모습들이 어떻게 연주되는지 모두 파악하면서 다시금 감상곡을 듣는다.

<그림 14>는 루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중의 첫 곡인 ‘새벽’에 관한 감상 그림 악보이고 이 자료로 감상 수업을 전개하는 방법의 예도 제시해 보았다.

<그림 14> "윌리엄 텔 서곡"중 '새벽'의 감상 그림 악보¹¹⁾

11) 서현미의 감상그림 악보

- 1) <그림 14>에서 막대 악보의 선율이 어디에 몇 번 나오는지 학생들이 찾아내어 곡의 구조를 파악한다. 감상곡을 들으면서 학생들은 막대 악보의 주제 선율을 어떤 악기가 연주하는지 생각해 본다.
- 2) 교사는 주제 선율을 첼로가 연주하며 앞과 뒤에 나오므로 aba'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알려준다.
- 3) <그림 14>에서 막대 악보 밑의 동그란 선율은 어떤 악기가 연주하며 중간 부분에 나오는 점점 세게와 점점 여리게의 그림은 어떤 악기가 연주하는지 학생들이 잘 생각하면서 다시 들어본다.
- 4) 교사는 동그란 선율은 콘트라 베이스가 연주했고 썸머림 변화는 팀파니가 연주했다고 알려준 후 학생들이 그림마다의 음색 변화를 느껴며 감상곡을 다시 들어보라고 유도한다.

4. 번호 도표로 감상하기

번호 도표 (call chart)란 감상곡 전체를 몇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번호를 주고 각 번호마다의 음악적 특징 (리듬, 선율, 썸머림, 음색, 짜임새 등등)을 그림이나 악보 또는 음악 용어로 설명해 놓은 것을 말한다. 번호 도표 감상지를 만들려면 교사는 우선 감상곡의 악보와 악곡에 대한 분석 자료, 감상 테이프를 마련해야 하는데 만약 교사가 청음 실력과 음악 분석력이 뛰어나서 혼자서도 감상곡을 선율적 특징에 따라 구분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 그림이나 악보로 표현할 수 있다면 감상 자료만 준비하여도 된다.

번호 도표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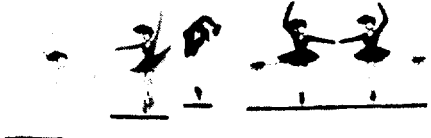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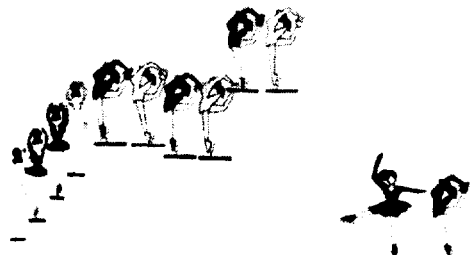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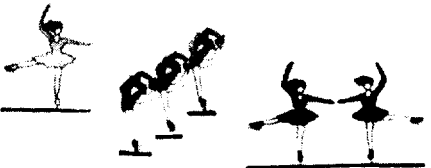
- 1) 감상곡에서 특징적으로 구분되는 곳을 나누어 번호를 매긴다.
- 2) 각 번호마다 가장 쉽게 들리는 또는 꼭 알아야 하는 음악 개념을 정한다.
- 3) 번호에 해당하는 음악적 내용을 그림이나 단순화된 악보 또는 음악적 용어로 표현한다.
- 4) 빈 테이프에 교사가 번호를 불러서 녹음하고 그 번호에 해당하는 음악만을 녹음하여 감상곡의 마지막 번호까지 녹음한다.
- 5) 감상곡 전체를 번호없이 악곡만 녹음한다. 만약 CD를 감상 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악곡 전체를 따로 녹음할 필요는 없다.

번호 도표를 사용하여 음악 감상을 지도하는 요령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 1) 학생들이 번호 도표를 보면서 번호가 녹음된 감상 테이프를 듣는다.
- 2) 각 번호마다 그림이나 음악적 상징으로 표현된 음악적 내용을 교사가 설명해 준다.
- 3) 번호 소리가 녹음되지 않은 원래의 감상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듣는데 이 때 학생들은 몇 번째 그림의 음악을 듣고 있는지 손가락으로 보여주며 다른 한 손으로 지휘를 해도 좋다.

번호 도표의 음악적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는 방법을 둘로 나누어 번호마다의 주제 선율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번호 그림 도표라고 이름지었고 막대로 그린 것을 번호 막대 도표라고 이름지었다. 번호 그림 도표의 예로 발트토이펠의 “스케이터즈 왈츠”를 <그림 15>로 제시하였고, 번호 막대 도표의 예로 바그너의 “탄호이저”중에 나오는 ‘행진곡’을 <그림 17>로 제시하였다. 바그너의 ‘행진곡’은 여러 가지의 주제 선율이 나오므로 첫번째 주제 선율을 <그림 16>처럼 그림으로 먼저 보여준 후 막대 악보로 만든 번호 도표를 사용하는 것이 악곡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번호 도표를 사용하여 음악 감상을 지도하는 실례도 함께 첨부하였다.

<그림 15> “스케이터즈 왈츠”의 번호 그림 도표

1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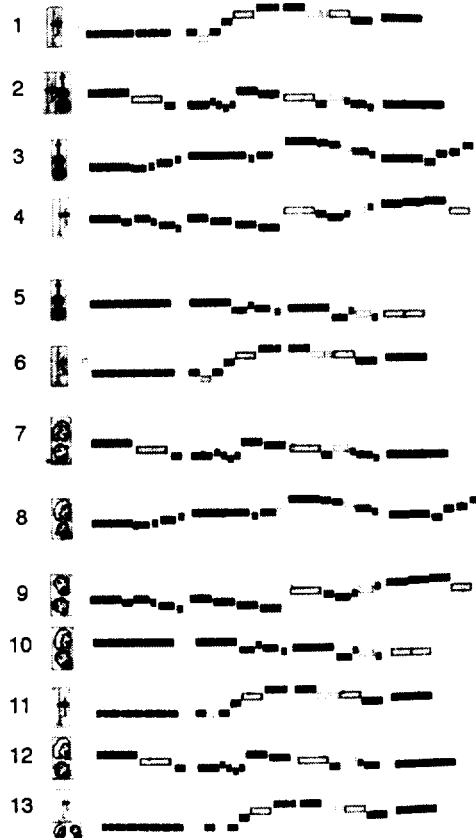
- 1) 학급을 셋으로 나누어 첫째 모듬은 <그림 15>의 첫째 그림 선율을 노래하면서 몸으로 표현하고, 둘째 모듬은 둘째 그림의 선율을 노래하면서 몸으로 표현하며, 셋째 모듬은 셋째 그림의 선율을 노래하면서 몸으로 표현하도록 연습한다.
- 2) 감상곡을 들으면서 각 모듬마다 자기네 선율이 나오면 몸으로 표현한다.
- 3) 학생들은 자기네 선율이 항상 2번씩 반복하지만 그 중간에 다른 선율이 끼어있다는 느낌이 되는데 이러한 구조를 음악에서는 aba형식이라고 부른다고 교사가 알려준다.
- 4) 감상곡을 다시 들을 때에는 각 번호에 해당하는 주제 선율이 나올 때마다 학생들은 손가락으로 그 번호를 보여 주어 이 곡의 주제 선율이 처음과 끝에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한다.

<그림 16> “탄호이저” 중 ‘행진곡’의 주제 그림 악보



- 1) <그림 16>의 나팔 모습대로 학생들이 트럼펫 부는 흉내를 내면서 주제 선율을 노래부른다.
- 2) 감상곡 전체를 들으면서 트럼펫의 주제 선율이 나올 때마다 학생들은 트럼펫 부는 흉내를 낸다. 결국 트럼펫의 주제 선율이 앞, 중간, 뒤에 나옴을 학생들이 감지한다.
- 3) <그림 17>의 앞부분인 1에서 6 까지의 관현악 부분만을 들을 때 학생들을 두 모듬으로 나누어 한 모듬은 현악기 연주하는 흉내를 내고 다른 모듬은 관악기 연주하는 흉내를 낸다. 현악기일 때에는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연주하는 흉내를 내고 관악기일 때에는 트럼펫이나 호른 또는 트럼본 부는 흉내를 낸다.
- 4) <그림 17>의 뒷부분인 7에서 12까지의 합창 부분만을 들으면서 여학생들은 여성 합창일 때 일어나서 노래부르는 흉내를 내고 남학생들은 남성합창일 때 일어나서 노래부르는 흉내를 낸다.
- 5) <그림 17>을 보면서 감상곡 전체를 듣는데 트럼펫이 연주될 때에는 모든 학생들이 트럼펫 부는 흉내를 내고 다른 악기나 합창 부분에서는 연주되는 부분의 번호를 손가락으로 보여준다.
- 6) 이 곡에서 똑같은 선율들이 앞 부분에서는 관현악기가 연주하고 뒷 부분에서는 남, 여, 혼성합창으로 연주한다고 교사가 정리해 준다.

<그림 17> “탄호이저” 중 ‘행진곡’의 번호 막대 도표



IV. 끝맺는 글

처음부터 음악적 상징인 5선 악보로 음악을 배우게 되면 누구나 음악이 어렵다고 느끼기 쉬우므로 이 글에서는 그림으로 음악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보았다. 노래곡의 그림 악보는 즐거운 생활에 실린 동요로 제한을 하였고 감상곡의 그림 악보는 3, 4, 5, 6 학년에 나오는 서양 악곡으로만 제한하였다.

먼저, 그림 악보를 그리는 요령을 설명한 후 노래곡의 악보를 그림 악보로 만드는 방법 여덟 가지를 실례와 함께 소개하였다: 1) 가사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기; 2) 노래의 선율을 원이나

반원으로 그리기; 3) 노래의 선율을 막대로 그리기; 4) 막대 악보 위의 그림을 가사 하나 하나마다 그리기; 5) 막대 악보 위의 그림을 1박마다 그리기; 6) 막대 악보 위의 그림을 1마디마다 그리기; 7) 막대 악보 위의 그림을 2마디나 4마디마다 그리기; 8) 가사의 전체적 내용을 배경으로 그리고 막대 악보를 그리기. 그림 악보로 노래 지도하는 방법도 요약하여 실었다.

감상곡을 그림 악보로 만드는 방법 네 가지를 설명하면서 그림 악보의 실례와 함께 지도하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1) 주제 그림 악보로 감상하기; 2) 막대 악보로 감상하기; 3) 감상 그림 악보로 감상하기; 4) 번호 도표로 감상하기.

초등학교 음악 수업에서 그림 악보로 지도를 하면 노래곡이나 감상곡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흥미도 자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 교과서에는 그림 악보로 된 노래곡이나 감상곡들을 많이 게재하고 번호 도표 감상지 또한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즐거운 생활 1 학년과 2 학년. 충남 :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1995.
- _____. 음악 3학년과 4학년. 충남 :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1996.
- _____. 음악 5학년과 6학년. 충남 :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1997.
- 성정희. 음악과 교육론. 서울 : 감을출판사, 1998.
- 임미경. “음악 학습지도의 다양한 방안” 음악 교육 연구, 11, 51-72, 1992.
- _____. “초등 학교의 음악 감상 지도 방법” 제27회 음악교육 학술세미나 및 연수회, 149-156, 1996.
- Bruner, J. S. Toward a theory of instruction.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 Mager, R. F. Preparing objectives for programmed instruction. San Francisco, CA : Fearon Publishers, 1962.
- Meske, E. Andress, B., Pautz, M. & Willman, F., Holt music : 3rd Grade teacher's edition.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Publishers, 1988.
- O'Brien, J. P. Teaching Music.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Publishers, 1983.

ABSTRACT

Music Instruction through Visual Materials for Elementary General Music

Mikyung Rim

Music reading by a 5-line staff is difficult to everybody because the notes of the staff are a kind of musical symbol. If the notes are represented by the figures of the melodic line, it will be easy to understand how music flows. However, the 5-line staff generally presents music scores in the lower grades' textbooks. Thus, the development of the iconic scores for the youngster' songs is urgently needed in order to improve their music reading skills. Since the themes of the listening examples in the elementary music textbooks are always showed on the music score and teaching-learning materials for those lessons are very limited, various kinds of visual materials for the listening sessions are also needed

This paper introduces several kinds of iconic scores for the youngster's song and listening examples. It also demonstrates how to make and use them in the singing and listening sessions. Actual lesson plans with the iconic scores for each session are presented.

Illustrated iconic scores for the song can be divided into 3 groups : 1) melodic line drawing according to the content of the song ; 2) melodic line drawing with the circle or the half circle ; and 3) melodic line drawing with the bar. The methode of drawing on the bar score are summarized into 5 ways : 1) by a word of the song ; 2) by one measure ; 4) by 2 or 4 measures ; and 5) by the image of the song ; 2) by one beat ; 3) by one measure ; 4) by 2 or 4 measures ; and 5) by the image of the song. The illustrated iconic scores for the listening examples include theme charts, bar charts, call charts, and listening maps.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visual materials for the elementary music instruction is needed and more iconic scores should be included in the 7th revision of elementary music textbooks.